OLÉ OLÉ - YANGYANG

양양소식

www.yangyang.go.kr

2012년 8월호

제208호 · 발행일 : 2012. 8. 27(월)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100년에 한 번 피는
양양의 고구마 꽃처럼

무더운 폭염에도 늘
질긴 생명력을 지닌
고구마 꽃처럼

절개와 의기가 충천한
양양의 올곧은 기상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온갖 어려움을 헤쳐 온
그 인내와 잠재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쏜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최대영

지면안내

●2면 오색케이블카 보완계획서 9월 신청 ●3면 경기활성화 · 오색케이블카 우선 ●4 · 5면 양양송이축제 10월3일 개막 ●6면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개방 ●7면 종합 ●8면 생활정보

오색케이블카 보완계획서 9월 신청

우리군 환경성 입지 강화…연내 재선정 판가름

우리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시범지역 재선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9월중으로 보완계획서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8월까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수립, 논란이 돼왔던 상부정류장의 입지선정과 노선 및 건축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며 민간전문위원과 개별면담을 통해 오색케이블카의 시범지역 재선정에 따른 당위성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8월중에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사회단체 등 전 군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타당성을 널리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에 따라 환경부가 수용 가능한 상부정류장의 입지선정을 위해 속도감을 내고 있는 가운데 경관이 우수하면서도 대청봉과 충분히 이격된 지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삭도설치의 검토기준인 환경성.기술성.경제성에 맞도록 환경성을 담보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설계를 담은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 등과도 만나 반대의견에 따른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설득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오색케이블카 시범지역 재추진과 관련, 면밀한 주변 식생대 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연경관 훼손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엄격한 사후관리 계획도 마련해 친환경케이블카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9월중으로 환경부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제출, 연내 최종 선정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상철 군수는 "오색케이블카는 설악권과 강원도의 발전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현안이기에 연내 반드시 재선정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도록 전방위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내년 국비 1천억 확보 총력전

우리군, 매월 보고회 갖고 상시 점검

우리군이 내년도 국비 1천억원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매월 '국비확보 대책 보고회'를 갖고 국비신청 현황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상시적인 국비확보 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81건의 단위사업에 일반국고, 광특회계, 기금 등 총 1,081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핵심전략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핵심사업으로는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동산항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증설)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오산가평지구 국민여가휴양지조성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하천 동명하천 정비사업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국비가 확정되는 10월까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 설명회를 갖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과 협조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정책 방향 등 동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군이 그동안 확보한 국비는 당초예산 기준 2011년도 579억원, 2012년도 585억원으로 총 예산 대비 29~30%를 차지하면서 군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실과소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임천·장승·기사교 재가설 필요

교량 43개소 안전진단 실시

우리군이 재난재해에 대비해 관내 교량 4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어촌도로상 교량 3개교의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낙산대교를 비롯해 관할지역인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교량 4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평가용역을 완료했다.

이번 교량진단 결과 군도상 설치된 교량은 A등급 5개소, B등급 9개소, C등급 4개소로 나타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어촌도로상 교량은 22개소 중 A등급 7개소, B등급 7개소, C등급 8개소는 안전하지만 나머지 서면 장승교와 양양읍 구 임천교, 양양읍 기사교(기정리~사천리)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D등급을 받은 농어촌도로상 3개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한 뒤 재가설에 나서기로 했다.

▶문의 건설방재과 토목담당 670-2773

의 정 소 식

"공설묘지 편법 장묘 논란 해명하라"

우리군의회 181회 정례회…'한계령'→'오색령'으로

우리군의회(의장 김일수)는 지난 17일 제181회 정례회를 열고 실과소별로 군정질문을 벌였다.

◆군정 질문=김택철 부의장은 "우리군이 최근 오색케이블카 등 3대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조치 및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재정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지방세수 증대 등 재정확충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의원은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설묘지의 장묘순서가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 답변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따져 물었다.

오세만 의원은 "우리군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엠토스 워터파크사업이 해지통보로 원점에서 재추진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홍규 의원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현남면 광진리~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현재 토지보상도 마무리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추진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다.

박정숙 의원은 "사료에 따르면 지금의 한계령이 과거에는 오색령으로 널리 통용되다, 일제강점기 창지개명을 통해 고유지명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색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주문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율 높아

우리군 보고회 개최…20개 현안사업은 미진

우리군이 올 상반기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추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7월17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장과 담당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각종 현안사업을 점검했다.

정상철 군수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300개의 추진사업 중 280개는 이미 완료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개의 사업만이 미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진한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위원회 정비, 오산지구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방안, 낙산 프레야콘도 정상화 방안, 정암초소 이전사업, 해마랜드.낙산월드 부지 활용방안, 연어과학관 조성사업,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사업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현안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조속한 개선방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 군수는 이날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실과소별로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면밀하게 짚어보며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경기활성화 · 오색케이블카 우선

내년 예산편성 설문조사 실시…'채무상환 · 긴축재정' 주문

우리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경기 활성화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원분배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분야는 경기활성화가 57.7%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창출(22.1%), 소득재분배(17.4%) 등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을 위해 채무를 줄이고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많았고 '재정부담이 되더라도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SOC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가 33.6%로 건전재정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 · 도비 보조비율을 높여 군비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가 47%, 국세중 교부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4.2%를 차지했다.

내년 예산 편성시 우선투자 분야로는 지역경제(22.5%), 사회복지(21.8%), 문화관광(16.4%), 도로교통(11.3%) 등의 순으로 조사돼,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예산투자를 주문했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현안사업으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24.3%로 가장 높았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22.1%), 양양종합운동장 조성(19.9%),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17.6%) 등으로 나타났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행사.축제성 경비가 43.6%로 가장 많았고 민간지원경비(22.1%),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13.4%) 등이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36.2%), 일자리 창출(24.2%), 인재양성(17.4%) 등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한 달간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 30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670-2108

양양장례문화원 본격 운영

지난 6일 개장식…장례편의 제공

양양장례문화원(대표 김영태)이 지난 6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례문화원은 이날 양양읍 연창리 양양정형외과 1층 광장에서 정상철 양양군수와 김일수 양양군의회 의장, 김양수 강원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양양장례문화원은 양양정형외과 1층 232㎡은 사무실 및 염실로 사용되며 지하에 조문실 3개소(651.45㎡)가 설치됐으며,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양양장례식장은 그동안 지역에 장례식장이 없어 주민불편과 경제적 유출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 우리군이 장례식장 및 화장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 장례식장의 거리, 주민이용 편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양양정형외과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주민들이 장례식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근의 사유지 660㎡를 매입, 군유지로 직접 관리하는 대안을 수립해 임대운영을 추진하는 등 경제성이 담보된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

장례식장이 운영됨에 따라 지역에 장례식장이 없어 인근 속초나 강릉 등으로 나가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12억원 가량 추산되는 장례비용 유출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해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용이한데다 주변상가의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장례식장의 필요성 대해서는 전 주민이 공감하면서도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오다, 정상철 군수가 취임 후 원만한 중재와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렴으로 난제를 풀었다는 분석이다.

김영태 대표는 "이번에 개장한 장례문화원이 주민들 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최적의 조문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양양장례문화원 671-0404

수산종묘 방류 어족자원 증강

우리군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올해 2억6,800만원을 투입, 다양한 어종의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어족자원 증강사업에 나선다.

군은 갈수록 고갈되는 어족자원을 늘리고 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돌가자미와 해삼, 뚝지 등 3개 품종을 선정해 연안해역의 특성에 맞게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돌가자미를 방류했으며 앞서 수산과 남애2리 어촌계에는 뚝지를, 인구와 동산 등 6개 어촌계에는 해삼을 다량 방류했다.

특히 군은 부가가치가 높은 돌기해삼의 소득창출을 위해 인구와 동산어촌계에 3천만원을 투입, 돌기해삼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산항에는 도루묵란 자연부화조를 보급했으며, 경제성이 높은 어패류 자원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개량조개를 방류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670-2740

여름피서 야영문화로 변화

피서객들 가족단위 캠핑장 선호

여름 휴가철 피서 패턴이 기존 숙박시설에서 야영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군에 따르면 피서철을 맞아 바다와 산간계곡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까지 관내 6개 마을관리휴양지에는 총 1만9,573명이 다녀가 전년보다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서림리 해담마을 등 주요 마을관리휴양지는 시원한 계곡물에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캠핑장에서 야영하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손양 오산해변 등 주요 해변에도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으로 피서객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는 피서철만 되면 콘도 등 대형 숙박시설의 예약이 일찌감치 완료돼 피서지 방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가족단위로 캠핑을 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군은 이에 따라 해변 주변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영장을 늘리고 있으며, 지경리 국민오토캠피장 조성 등 여름피서 패턴변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김익환 도연합회 감사 국무총리 표창

농업경영인 양양군연합회(회장 김문종)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제13회 한농연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 전직 회장이면서 현재 농업경영인 강원도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익환씨가 우수회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일본 롯카쇼촌과 친선교류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롯카쇼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지난 7월 22~26일까지 우리군을 방문해 축구와 민박교류로 우의를 다지고 돌아갔다.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초등학생 축구부 18명은 지난 23일 양양유소년 축구부와 양양초등학교 축구장에서 친선 게임을 갖고 스포츠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이날 양국의 유소년 축구선수들은 축구경기를 마친 뒤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등 우리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롯카쇼촌 고교생 15명은 지난 7월 23~26일까지 우리지역에서 민박을 하며 생활양식과 한국어를 익히고 돌아갔다.

▶문의 기획감사실
평가통계담당 670-2105

양양송이축제 10월3일 개막

10월7일까지 5일간…관광상품화 연계

올해로 16회를 맞는 양양송이축제가 오는 10월3~7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송이축제위원회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전 축제준비에 들어갔다.

양양송이축제위원회(위원장 김우섭)는 지난 25일 문화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72개의 세부행사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양양송이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양양송이와 사랑愛에 빠지다'를 주제로 주무대인 남대천 둔치와 양양전통시장 · 송이산지.송이밸리 등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주요 행사로 산신제와 개막식, 축하공연 등 개막행사와 함께 외국인 송이채취현장체험, 송이보물찾기 등 변함없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장체험행사, 문화예술행사, 맛 체험 행사, 상설행사, 거리행사 등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기본 행사와 함께 버섯채취체험, 버섯음식점, 송이추억남기기, 양양인증샷, 행사장내 송이보물찾기, 송이기념품 만들기, 거리퍼포먼스 등 7개의 신규행사가 재미를 더한다.

버섯채취체험은 양양송이밸리에서 송이버섯을 비롯해 표고, 느타리, 노루궁뎅이 등 다양한 버섯을 식재해 관광객들이 채취하며 버섯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북면 어성전리 탁장사체험, 손양면 동호리 멸치후리기, 서면 송천리 떡마을체험, 낙산배 따기, 양수발전소 탐방 등 지역과 연계한 이색체험 테마도 내실을 더해 시골체험의 묘미를 통해 가을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외국인 현장체험과 관내호텔 송이요리페스티벌은 9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0일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양송이축제위원회는 올해 송이축제 성공개최를 통해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동안 축적된 체험테마 등으로 관광상품화완 연계해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송이축제는 올해 송이축제 개최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사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 가운데 축제장의 색다른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8.15 전국실업사이클대회 열려

13~14일 양양사이클경기장서 야간경기로

8.15 경축 전국실업사이클대회가 13~14일까지 양양사이클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양양사이클경기장이 개장된 후 두 번째 전국 대회로 열리는 이번 전국실업사이클대회는 트랙 8개 종목에 남녀 실업팀 및 남녀 우수 고교선수 15개팀 200여명이 참가, 계속되는 무더위로 야간경기로 진행됐다.

이번 경기에는 2012년도 사이클연맹 선수 등록을 필한 선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1000m 속도경기, 경륜경기, 책임선두경기, 스크래치경기, 제외경기, 단체스프린트, 3㎞ 단체추발, 4㎞ 단체추발 등 8개 종목의 트랙경기가 시원한 레이스를 펼쳤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늦여름나기 특별음식 대접

낙산사 정념 큰스님 건강 축원

낙산사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지역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늦여름나기 특별음식'을 대접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낙산사 회주, 정념 큰스님은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부터 노인복지회관 1층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름 별미인 콩국수와 수육, 복숭아 한 봉지씩을 직접 나눠드리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축원했다.

이번 늦여름나기 특별음식은 올 여름 계속되는 무더위로 심신이 지친 어르신들의 입맛을 살려 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됐다.

정념 큰스님은 "여름 무더위를 나고 계신 어르신들이 늦더위에도 입맛을 잃지 않도록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늦더위까지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 신명을 다하겠다"고 축원했다

사진전문가 / 최대영의 우리고장 돋보기

무더위 날린 하조대 해변

폭염이 계속되는 올 여름 하조대 해변은 푸른 동해바다와 재미며 그동안 쌓인 피로를 양양에서 풀며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충래장난으로 여름추억을 간직했다. 하조대는 올 여름 명사십리

주민이 행복한 평생 학습도시 만든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85강

김철중의 건강하게 오래 사는법

인생에 있어서 생로병사처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인간 존재의 본원적인 고뇌가 바로 생로병사인 것이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기를 바란다. 인류 역사에서 장수는 항상 중요한 화두였다. 문명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섰고, 국내에도 100세 인구 2천명 시대가 다가왔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암, 심혈관 질환, 각종 노인성 질병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의술도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을 오히려 경계한다. 중요한 것은 장수의 질이다.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늙어도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맑을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은 좀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장수이다.

무병장수의 비결로 많은 의학전문가들은 건강한 정신을 위한 '생활습관'을 강조한다. 인간의 수명은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올바른 섭생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이번 밀레니엄양양아카데미에서는 의학전문기자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선일보의 김철중 기자를 초빙하여 건강 장수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운동법, 질병예방 및 치료와 마음수양 등 무병장수 실천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 강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Ⅰ.평균수명 연장 - 100세를 넘는다

△평균수명 연장 - 71년생 돼지띠 남성들 절반이 94세 이상 산다 △준비안된 100세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86강 안내

- ○ 일 시 : 2012. 8. 29 (수) 15:00
-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 2층
- ○ 강 사 : 이홍렬(李洪烈) 오산대학 예체능계열 이벤트연출과 겸임교수, 리센엔터테인먼트 대표
- ○ 강연주제 : 이홍렬의 웃음바이러스(웃으며 삽시다)

미난 이벤트로 많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조대를 찾은 피서객들은 푸르른 포말을 친구삼아 모처럼의 휴가를 만끽하
충분했다. 가족단위 피서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바다를 오가며 즐거운 물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은 저마다 재미난 모
의 해변을 선사하며 자연 그대로의 풍성함을 전했다.

나에게도 국가에도 재앙 △150세까지도 살 수 있을까 과학계 뜨거운 논쟁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 노후 문제 폭탄으로 △늘어지는 세대차이 △평생 복수 직업, 창업 시대 △이웃이 가족인 신 두레 시대 : 한복판에 노인정 △홀로사는 노인 100만명 고독사 두렵다 - 도쿄 사망자의 30%가 직화

Ⅱ. 장수시대의 3테크

△재테크 △헬스테크 △정테크

Ⅲ. 장수시대의 새로운 나이계산법

△현재 나이 곱하기 0.8, 70세=56세 △현재 60세 된 사람의 예상 생존 기간 △120-자기 나이(60) = 60년 △지금 나이 60인 사람은 60년 더 살수 있다는 계산 △환갑을 2번 맞는다

Ⅳ. 자기 주도형 건강관리 전략

△장수시대의 화두 △건강한 삶과 죽음에 이르는 삶의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 △최후까지 활동력 있는 삶을 유지해야 △유전적 요인(30%)을 뛰어넘는 일상의 실천이 중요해짐 △건강 : 전문가 의존 시대- 자기관래형 시대로

Ⅴ. 장수시대의 주치의

△건강 생활 가이드 △정신 및 육체적 건강 주치의가 필요 △병의 진단 치료만 하는 고압적 의사 피해야 △환자 아닌 고객과 소통하는 건강설계자 △자기 고객과 현대의학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Know How에서 Know Where △나는 의사다

Ⅵ. 120세 장수 시대를 맞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 히노하라 박사의 신(新)노인 장수 건강생활

1. 죽는 순간까지 인생의 현역으로 살려는 자세를 갖자 2.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산다. 3. 항상 창조하는 일을 하고, 남을 위해 살자 4. 살기 어려운 것은 어는 세상에서나 똑같다고 생각하자 5. 남이 쉽게 찾아오는 집을 만들어 사람들과 활발한 교제를 하자 6. 젊은 사람들의 관삼사에도 귀를 기울인다 7. 항상 걷는 습관을 지니고 몸을 쉴 새 없이 쓰자 8. 노년 건강의 최대 적은 낙상 골절 : 잘 구르는 연습을 하자 9. 몸에 좋은 심호흡과 복식 호흡을 하자 10. 웃음으로 얼굴에 주름을 늘려보자 11.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의사를 찾자

○ 노년의 공포 :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 △제2외국어 배우기 △빨리 걷기

Ⅶ. 건강한 삶을 위한 팀

△비타민, 아스피린 먹기 △철분제 먹기, 빈혈의 위험 △스케일링 하기 : 생일날 △카레, 마늘, 오메가 3, 색깔 다른 과일 많이 먹기 △와인 한 두 잔 먹기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낮추기 △좋은 콜레스테롤(HDL)을 높이기 △혈압을 낮게 유지하기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반반 △건강 검진 요령 껏 하기

Ⅷ. 멋진 노년의 모습, 老 테크

7up - clean up(몸 깨끗이 면도, 손톱, 냄새) △cheer up(얼굴, 말씨 밝고 명랑) △dress up(옷 잘입고) △shut up(인내하고 입은 가능한 채우고) △give up(욕심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pay up(얻어먹지 말고 싼 것이라도 돈은 자기가 내도록) △show up(친구 자주 만나고 모임 나가고)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27. 수탉소리

프득 프득
프드득
배곯아 죽겠다
배곯아 죽겠네

온종일
니(너) 멕이다(먹이다)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꼬기요 꼬기요
꼬끼끼오
꼬옥 기기오.

지금처럼 집단적 전문적 사육환경이 아닌 농촌에서 닭을 많지 않게 마음대로 내놓고 치던 시절.

처마 밑이거나 마구간 등 적당한 곳에 횃대를 설치해 놓은 곳으로 해가 지면 먼저 오르는 닭의 뒤를 따라 차례 차례 올라 앉아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무렵 가끔 초저녁에 홰치는 수탉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한밤중에 날개 짓을 하고나서 요란하게 밤을 찢는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내 뽑어댑니다.

시계가 그리 많지 않던 그 시절에 그 소리가 시각을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잠에 깬 주인 양반 자신의 일상과 비유하여 家長(?)끼리의 어떤 푸념의 상통성을 꼽지 않나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은 생활주변의 평범한 울림에서 생활철학을 얻고 힘을 얻어 밝음이 올 아침을 어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나 여겨봅니다.

양양여자어린이축구단 전국 제패

지난 4월 창단한 양양여자어린이축구단이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축구의 대들보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양양여자어린이축구단은 지난 7~9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전국 26개 클럽 720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해 열린 국민생활체육 주최 '2012 여자어린이 Fooball Club Challenge' 전국대회에서 4승1무의 빼어난 성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양여자어린이축구단은 양양초교, 광정초교, 현북초교, 조산초교, 손양초교 재학생들로 구성돼 지난 4월 창단했으며, 여자어린이축구교실을 통해 실력을 배양해 왔다.

양양우체국 에너지절약 실천

우편차량에 홍보 스티커 부착

양양우체국(국장 김간철)이 제2기 국민발전소 건설 주간을 맞아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에 나섰다.

우체국은 지난 16일 우편차량과 이륜차에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4대 실천요령 구호를 외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선포는 발대식을 갖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이 실천되도록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양양도서관 여름문화탐방 호응

초등생 15명 터키문명전 관람

양양도서관 (관장 전인희)이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문화탐방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양양도서관은 지난 2일 4~5학년 초등생 15명을 선발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터키문명전-이스탄불의 황제들'을 관람하는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전문해설가와 함께 역사적 지식과 숨은 의미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또 기획전시 관람 후 연계 기획된 뮤지컬 '돈키호테와 터키원정대'를 관람하며 터키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문화공연을 보는 기회도 제공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실시

저소득층 · 다문화가정에 지원

우리군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발전기금 2백만원을 들여 지난 27일 저소득아동 17명을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회, 63빌딩을 방문하는 저소득아동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이어 오는 9월에는 '여성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지역여성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11월에는 다문화가정의 문화체험 행사, 12월에는 다문화가정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여성발전기금 적립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군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처음 조성돼 2011년까지 3억9,900만원이 적립됐으며, 올해 1천3백만원의 기금을 각종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70

외래교란종 제거작업 강화

돼지풀 등 원천제거 추진

우리군은 최근 토종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의 번식이 확산되고 있어 교란종 제거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란종은 단풍돼지풀 8,940㎡, 돼지풀 530만7,830㎡, 가시박 13만8,900㎡ 등 총 545만5,670㎡의 면적에 교란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채용해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8월까지 집중적인 제거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계교란종은 외래 유입식물인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도깨비가지, 가시박 등으로 기존 조사지역 중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제거작업은 교란종 특성에 따라 씨를 맺기 전인 8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란종이 도로 및 강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인근 시군과도 연계한 제거작업을 실시 할 예정이며, 재화시기에는 상대꽃대를 제거하고 종자는 소각처리하는 등 교란종이 다시 서식할 수 없도록 원천제거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670-2180

현남 광진~포매 농어촌도로 부분 준공

10월 최종 완공…피서철 교통소통 도움

현남면 광진리~포매간 농어촌도로가 10월 최종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320m가 이달 준공돼 피서철 교통소통 및 영농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로협소로 인해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농어촌도로가 이달 초 부분 준공돼 차량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너비 8m, 길이 0.7km로 확 · 포장되며 7번 국도변에서 현남중학교로 이어지는 농어촌도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역의 개발촉진은 물론 포매호 주변의 차량통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주변에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포매호가 위치해 경관이 수려한데다 확 · 포장될 경우, 관광도로의 역할까지 전망되고 있다.

군은 총 14억원을 투입해 1차로 320m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나머지 380m를 준공할 계획이다. ▶문의 건설방재과 토목담당 670-2773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개방

데크로드 · 전망대 설치…생태하천 기대감

우리군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추진해온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 지난 7월20일 완료돼 일반에 공개됐다.

군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한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 완공돼 남대천의 다양한 생태환경을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은 총사업비 12억7,000만원을 들여 남대천 좌안부인 송이공원 동쪽 끝단부~낙산대교 좌안까지 7만6,447㎡의 면적에 생태환경을 한 눈에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폭 2m, 길이 658m의 데크로드와 전망대 8개소를 설치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용이하게 접근해 남대천의 생태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만424㎡ 규모에 갈대, 물억새, 달뿌리 등의 생태식물 식재를 완료, 생태하천으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은 기존의 남대천 제방도로 경관가로등, 낙산대교 조명시설 등과 조화를 이루며 남대천 하구가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서철 최대 관광지인 낙산지역과도 연계돼 볼거리 확충을 통해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남대천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 연어 이야기, 다양한 남대천 서식어종 및 식물 등을 관찰하는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군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연어스토리텔링 등 친환경 생태프로젝트를 추진해 남대천을 생태거점 하천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된 연어생태공원 중 658m의 데크로드는 남대천 주변의 경관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생태학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670-2160

계약심사로 11억원 예산절감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

우리군이 올 상반기 계약심사제를 통해 1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양양군 계약심사 업무규정'을 제정, 계약심사제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60건에 11억7,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 42건의 공사 심사결과 193억원의 심사요청금액 중 5.41%인 10억원이 절감됐으며, 용역사업은 13건에 1억원, 물품구입은 5건에 2,100만원 등의 예산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우리군의 계약심사제 대상은 종합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용역사업 3천만원, 물품의 제조 · 구매는 2천만원 이상,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시 10%이상으로 설계 변경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 · 도비 보조사업은 공사 2억원~5억원, 전문공사 1억원~3억원, 용역사업 3천만원~5천만원에 대해 강원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외사업은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심사제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운영을 활성화시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물품 등을 구입하고 특히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내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현장 확인으로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하는 한편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선정 등을 심사해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세무회계과 계약관리담당 670-2144

38선 잔교리 평화마을로 탈바꿈

우리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분단의 상징, 38선 마을인 현북면 잔교리가 공공미술을 통해 평화마을로 탈바꿈한다.

'38평화마을 잔교리, 기억의 치유'를 주제로 추진되는 잔교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남북분단의 상징인 38선 인접 마을에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평화를 기원하는 컨셉으로 총 8점의 작품이 설치된다.

잔교리 마을 0.7km구간에 설치되는 공공미술 작품은 포탄의 탄피를 형상화한 '꽃피는 잔교리', 마을입구 터널에 관내 초등학생들의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부착하는 '평화 갤러리', 마을하천을 사이에 두고 평화를 낚는 '하나된 마음', '지구의 둥지', '생존의 울린, 평화의 종소리', '평화', '기억의 치유', '희망. 평화의 메신저' 등 8개 테마로 구성된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38선 미니주제 체험관과 38선 숨길 탐방로가 이미 조성된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까지 완료되면 현북면 잔교리는 남북 분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평화마을로 탄생하게 된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피난음식 체험관과 검문소, 전망대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38선 숨길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잔교리를 역사적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전국적인 평화마을로 가꿔나간다는 구상이다.

▶문의 미래전략과 자전거정책담당 670-2266

도심 속 자연휴양림 '각광'

양양송이밸리 개장 한 달만에 7백명 이용

도심 속 자연휴양림인 양양송이밸리가 개장 한 달 만에 이용객 7백명을 돌파하며 각광받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달 4일 개장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 지난 6일까지 71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송이밸리 이용객들은 피서철을 앞두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해 사전 예약이 완료된 가운데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분석이다.

양양읍 근처 울창한 산림 속에 조성된 송이밸리는 자연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신식 숙박시설을 갖춘 데다 주변 산림과 조화를 이뤄 올 여름 고온에도 시원한 안식처로 피서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송이밸리를 이용한 한 피서객은 "인터넷 예약으로 양양송이밸리를 처음 이용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주변의 숲과 바다가 가까워 좋았다"며 "도심 속에서 자연휴양을 즐길 수 있어 가을 단풍철에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만족해했다.

또 피서철 성수기에도 객실 1개당 8만5천원의 저렴한 이용료가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등 편의시설 대비 이용료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는 평가다.

양양송이밸리의 한 달간 수입도 1천3백만원으로 집계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목재문화체험장까지 조성되면 송이밸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 670-2634

지역 농 · 특산물 서울서 '인기'

송천떡 등 28개 품목 15일까지 판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여름철 수도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지역산 농 · 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 유통점에서 판매전을 열고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판매에 나섰다.

이번 판매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송천떡과 송이주를 비롯해 연어까스, 두부 등 양양을 대표하는 8개 향토업체에서 특산물 28개 품목이 선보였다.

우리군이 단독으로 마련한 이번 판매전은 첫 개장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1천3백만원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송천떡과 꿀, 허브 등이 도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농 · 특산물 판매전은 기존에 정월대보름이나 한가위를 앞두고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던 판매전을 차별화해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했다.

군은 이와 함께 농 · 특산물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소득증대를 이뤄내기 위해 수도권에

상설 판매장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서철을 맞아 쏠비치를 비롯해 장터열차, 경마장 등 지역특산물의 유통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마케팅담당 670-2703

디지털 방사선 장비 도입

보건소, 실시간 판독 건강증진 기대

우리군보건소(소장 이임순)가 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방사선 장비를 도입,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빠른 판독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디지털 방사선 장비를 구축하고 지난 7월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억원을 투입해 도입한 디지털 방사선 장비는 엑스레이 영상을 기존의 필름이 아닌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조회해 판독하는 장비로, 선명한 영상과 원격판독시스템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은 물론 재촬영이 필요없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기존 방식은 엑스레이 촬영 후 현상에서 판독, 진단까지 3~5일이 소요되는 반면 디지털 방사선 장비는 촬영 즉시 진단의사의 컴퓨터로 영상이 전송됨으로써 신속한 판독과 진료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환자관리 및 조기발견,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670-2550

"호신술로 성폭력 방지한다"

여성회관 무료호신술 강좌 운영

우리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무료 호신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회관은 지난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생 이상 남녀아동과 18세 이상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호신술 강좌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양양읍내 백호유도관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대처법과 여성 호신술, 호신용품 활용 등으로 진행된다.

여성 유도인인 백호유도관 진순조 관장이 강사로 나와 진행하는 이번 무료 호신술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재를 갖추도록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이뤄진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70

친환경 홍보센터 · 유통매장 개점

양양지역자활센터, 우리텃밭 제품 판매

양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건필)가 친환경 생활화 정착을 위한 전문 홍보센터와 유통매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홍보 및 판매에 들어갔다.

자활센터는 지난 13일 오후 2시 현석상가에서 정상철 양양군수와 이건필 센터장, 자활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EM환경센터 및 우리텃밭 양양점 개점식을 가졌다.

양양지역자활센터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해 '양양EM환경센터'를 구축하고 인체에 유용한 미생물로 발효시킨 발효액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1일 1명씩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이런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생활 전반에서 친환경 생활화가 이뤄지도록 유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전환점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로 옆 매장에 개장한 '우리텃밭 양양점'은 친환경 유통 전문매장으로 유기농 방식에 따라 재배된 농축수산물을 판매한다.

이 매장에서는 송이고추장과 송이과장 등 우리텃밭에서 키워낸 재료를 비롯해 지역 영농단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 등 100여 가지가 판매돼 아이들의 소중한 건강까지 챙기게 된다.

양양지역자활센터는 친환경 생활방식이 안착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기농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환경센터 구축과 함께 '양양자활 늘푸른유통'을 설립해 본격적인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현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제품판매가 이뤄지지만 조만간 자활에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친환경 제품 생산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양지역자활센터는 그동안 각종 사업단 운영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오고 있는 가운데, 튼튼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친환경 제품 홍보 및 판매에 나선다.

강원도 공고 제2012 – 651호

「2012년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모집공고

1. 모집기간 : 2012. 8. 1 ~ 8. 20 (20일간)
2. 모집대상 : 5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예정)군인 중, 강원도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자
3. 모집분야 : 4개 분야 (취업/창업/기술교육/귀농 · 귀촌)
4. 모집인원 및 지원내용
5. 신청방법
   - ❍ 온 라 인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홈페이지
     ☞ www.armyjob.kr → 신청서 작성 (클릭)
   - ❍ 센터방문 : 춘천시 중앙로2가 11/ 신한은행 춘천중앙지점 3층
6. 지원대상자 발표 : 2012. 8. 31(금)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문의 :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 033-255-6455, 255-6478

2012년 7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유가족에게 형사 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 · 의료 · 법률 ·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단체입니다.

▶**상담 지원** : ※전화상담 ※면접상담 ※방문(출장)상담
▶**의료 지원** : 병원안내및동행, 전문의료기관과연계한치료/의료비지원
▶**법률 지원** : ※형사조정 ※정보제공 ※수사기관 법정동행
▶**경제적지원** :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 곤란자 ※경제적지원 ※학자금지원 ※취업알선

법무부 춘천지방검찰청 속 초 지 청
사단법인 속초·고성·양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락처 : 033)638-1111/ fax:033)638-1114 /www.sokb.kr/전국콜센터:1577-1295
주 소 : 속초시 중앙로209 (수복탑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앞(1층)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주기 안내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내부청소주기**

1. 6개월마다 1회 이상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정화조
2. 연 1회 이상 : 그 밖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내부청소수수료** : ℓ 당 15원 (단, 분뇨는 ℓ 당 12원입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 업체**

미화정화사 : 671-0018, 현남정화사 : 671-6780, 양양용역정화사 : 672-1238, 금성정화사 : 671-0063, 삼성정화사 : 673-6055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시 유의사항**

1. 정화조에는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만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2.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원을 항상 유지시켜야 하며, 기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군청 환경관리과 ☎ 670-2184

5대 폭력 척결 추진 홍보

경찰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폭력범죄로부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치안 구현

□ **추진기간 및 중점 단속대상**

▷ 추진기간 : 2012. 6. 20 ~ 10. 31〈134일〉

5대폭력	주 요 추 진 사 항
조직폭력	▷ 합법을 가장한 유령회사(법인) 운영 및 기업형 조직(성) 폭력배 ▷ 위화감·공포감 조성 및 대선 등 선거개입 행위
주취폭력	▷ 영세상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상습적인 각종 주취폭력
갈취폭력	▷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학교폭력	▷ 상습적·고질적인 폭행·협박 등 학교폭력
성 폭 력	▷ 장애인·아동 대상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 중점 단속대상

◇범죄 피해자 신고◇

☞ 신고전화 : ☎112, (033)638-0112

☞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 포털(WWW.Police.go.kr)

속 초 경 찰 서

현역병 지원입영 롤 – 모델 수기 공모전

○ **공모기간** : '12. 7. 2 (월) ~ 8. 31 (금)

○ **응모대상 및 주제** :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 또는 전공을 살려 현역병으로 지원·복무 후 전역한 사람 중

- 군 복무 특기와 관련이 있는 분야 취업에 성공한 사례
- 군 복무 특기가 학업을 계속할 때 도움이 된 사례

○ **원고 작성 및 제출**

- 분량 : A4용지 3매(글자크기 13P,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제출 : E-Mail : mma2012@hanmail.net

우 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현역모집과

※ 제목, 성명, 연락처(E-Mail, 전화번호)를 표지에 기재

○ **시 상**

-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각 50만원, 장려(30명) 각 5만원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Tel. 042-481-274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집중단속기간(과태료부과)** : 2012. 9. 1 ~

○ **단속주체** : 양양군청

○ **단속범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위반시 과태료부과** : 10만원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27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태료)

○ **위반차량 신고 및 관련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670-2688

장마철, 전기안전관리 요령

-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적색 시험버튼을 눌러 고장여부를 확인한다.
  ※ 가전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원을 모두 분리한 후 시험한다.
- 세찬 비바람에 의하여 전선이 끊어진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 고장신고 한다.
  ※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분전함의 전원개폐기를 내린 다음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후 전기안전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번 없이 1588-7500번
- 번개가 치면 농촌에서는 전선이나 금속체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한다.
- 전기안전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 033)635-6252 [국번없이 1588-7500]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기 간**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10월 20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12. 13) 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 12. 19)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 **제 출 서 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 권사본

☞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취약계층 서민금융 지원』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서민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 **설립목적**

- 강원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은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

■ **신용보증대상기업**

- 강원도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취약계층 창업 및 운전자금[긴급생계자금포함] 지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구 분	지 원 내 용
대 상	○ 취약계층의 창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저소득사업자 ○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 운영중일 것 ○ 창업자금 신청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함.
대출한도	○ 창업자금 2천만원, 운전자금 2천만원, 긴급생계자금 1천만원
대출금리	○ 최고 7% 내외 (변동금리)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료율	○ 0.8% (전국 최저)
기본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진행절차	1. 신용보증신청 2. 상담 및 보증심사 3. 보증서 발급 4.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대출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1)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번지 기업은행 4층

2) 연락처 : Tel) 638-9780~1 / Fax) 638-9783